

목포시 김 수출액 전국 지자체 중 1위...전년비 43% ↑

1분기 3032만 달러...목포시 전체 수출액 3595만 달러 84% 비중
김 가공기업 적극지원 성과...글로벌 시장 ‘검은 반도체’ 열풍 주도

목포시가 전국 지자체 중 김 수출액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에서 ‘검은 반도체’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1분기 김 수출액은 303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증가,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1분기 목포시 전체 수출액 3595만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목포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3308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에 나서는 등 김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2년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 산업 전문화의 길을 열었다.

또 김 가공과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과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 6612㎡ 규모의 조성된다.

지역수산물을 이용한 소비 트렌드 맞춤형 신제품 상품화 등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임대형 가공공장, 국제마른김거래소, 연구지원 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거래소, 수출지원 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임대형 가공공장은 김을 비롯한 해조류, 전복, 어묵, 어패류 등 목포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36개소의 가공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목포시가 전국 지자체 중 김 수출액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목포시 대양산단 내 김 가공공장 모습.

〈목포시 제공〉

국제 마른김 거래소는 마른김 거래의 유효 효율성을 높여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마른김 거래 허브 역할을 하며, 오는 2026년 개장해 목포 중심의 마

른김 유통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목포시 김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농어촌수도 추진 전략 속도...51명 자문단 구성

농업·문화관광 등 5개 분야

해남군이 농어촌수도 추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에 아이디어를 보태줄 자문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갖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문단은 농업업과 문화관광, 보건복지환경, 인프라, 정책지원 등 5개 분야, 51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부서별 과제에 적합한 실무형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후변화, 스마트생명 등 농업업 분야와 인공지능

농(AI)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농어촌수도 해남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한 해동안 군정 현안과 부서별 과제에 대한 서면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군내 현장 방문도 실시해 도출된 결과를 공유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자체 발굴한 농어촌수도 전략의 부서별 중점과제에 대한 자문을 거친 후 5월 중 보고회를 개최해 농어촌수도 비전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계획이다.

해남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과 기

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발전 전략인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자문과 자문위원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해남군 농어촌수도 전략 추진에 민관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공직자의 열정에 자문단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더해 앞으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수립하고 미래발전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햇빛아동수당 2998명에 120만원씩 지급 완료

총지급액 35억 9760만원

신안군은 2025년 상반기 햇빛아동수당으로 총 2998명에게 120만 원씩 지급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햇빛아동수당은 지난 2023년 연 4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연 80만원, 올해는 연 12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10명이 증가했으며 총지급액은 35억 9760만원에 달한다.

대상 아동의 46%에 해당하는 1381명은 햇빛아동적금에 가입해 만기 시 7.5%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올해에도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기념해 초등학생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72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2023년 햇빛아동수당 지급 이후 아동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큰 성과다”라며 “햇빛아동수당이 가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2025년 햇빛아동수당 전달식에서 김대인(왼쪽)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김정대 신재생e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영암군 농특산물, 광주 아파트단지서 직거래

9~10일 도시·농촌 상생 장터

영암군은 오는 9~10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아파트SK부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아파트 내 현 큰광장에서 ‘2025 도시·농촌 상생 한마당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이번 아파트 직거래장터는 영암군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광주시민에게는 영암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농업·기업에게는 도심 판로와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했다.

영암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 아파트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을 제시해 도농상생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농부남생이마켓, 영암축협, 해피맘기찬양조 등 영암 19개 농가·생산자단체·기업 등은, 직거래 장터에 각각 다양한 판매 리스트를 갖춘 판매 부스를 연다.

친환경쌀·한우·잡곡·채소 등 농축산물에서 된장·고추장·김치·요구르트·치즈·떡·전통주·무화과잼 등 가공식품까지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주민에게 제공한다.

아파트 직거래장터가 흥과 정이 넘치는 시골장터 분위기가 나도록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할인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각 판매부스 별로 자체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서는 가야금 공연, 사생대회가 열린다. 동시에 각종 체험 부스와 휴대폰 액정 교체 부스도 열려 실속 있는 장터가 될 전망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맛과 건강, 품질을 그대로 아파트단지로 옮겨 놓은 직거래장터에서 광주시민과 반갑게 만나겠다”라며 “영암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아파트 직거래장터에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3% 추가 자부담 7% 완화

영광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를 추가 지원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실제 농가 부담은 7%까지 줄어들게 됐다. 이는 전남도 내 최고 수준의 지원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영광군은 또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비사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단순한 재해 보장을 넘어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손실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농작물 재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다. 보험료 3% 추가 지원을 통해 시범 운영의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포함)은 작물별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마와 옥수수는 4~6월, 콩은 6~7월, 양배추와 감자는 8~9월, 마늘과 양파는 10~11월, 보리는 10~12월에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벼와 대파는 다음 달 2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업 경영은 날씨뿐 아니라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며 “이번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이 농가의 안정적 소득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영 기자 kcw@kwangju.co.kr

휴식·창업공간 ‘목포청년쉼터 다락’ 6월 개관

온금동에 299.84㎡ 규모 개관

목포시가 청년 소통과 창업을 위해 조성한 ‘청년쉼터 다락’ (이하 다락)의 6월 개관을 앞두고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면적 299.84㎡, 지상 2층 규모로 온금동 3-9번지에 위치한 다락은 지역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1층은 카페, 2층은 회의실, 북카페 등 소통공간으로 각각 조성됐다.

목포시는 앞서 목포시의회 청년의원, 청년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건립과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또 도비 1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건축물 등기를 완료하고 무장에 본인증 승인 심사를 받았다. 카페 운영자를 공개 모집 중이며 운영자를 선정하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다락이 청년을 위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이자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거점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머무르고 활동하며, 서로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쉼터 다락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오는 6월 개관과 원활한



목포시가 청년의 힐링 및 창업을 위해 조성한 ‘청년쉼터 다락’이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온금동에 등지를 뚫은 청년쉼터 다락.

〈목포시 제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경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13개 핵심사업 대선공약 제언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지정’ 등 요청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 공약 제언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이 준비한 13개 주요 핵심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제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의할 영광지역의 강점과 미래비전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해 정책 공약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과 ‘서남해안권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를 영광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O&M 거점기지 건설, 탄소중립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등 각 분야에 공약을 제언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햇빛과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가능성”이라며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서남해안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이 영광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 제언 이후에도 재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 및 정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국정과제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광=김창영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보장한도 15억원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진도군이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한다.

보장한도는 최대 15억원으로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배상책임 ▲미디어배상책임 ▲사이버갈취 ▲데이터자산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